



우량한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가

<신 정 재>

채란계에 솟갓을 넣어서는 형태의 종계가 상당수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별로 제한을 받지 않았던 수입종계의 도입은 손쉬운 것이어서 한동안은 외국종계의 전시장같이 느껴질 정도여서 저마다 외국의 무슨 무슨 집정시험에서 1위를 차지하여 결국은 “전부 1위를” 차지한 우수종계여서 초생추 구입시 어리둥절케 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무질서와 난립도 작년을 고비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게 되었음은 천만다행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금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가격의 대폭인상에 따른 양계업 전체의 사활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선 지난해부터 한국가금협회가 주관한 도입종계 수를 산란계 54,000여수, 육계 118,000수로 대폭(약20%) 절감한 것은 물론 그 종류에 있어서도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화와 초생추의 생산은 배합사료와 산란 육계의 생산과 함께 양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다. 양계는 부화로 시작해서 계란과 육계로 끝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양계업계의 불황이니 불경기니 떠들석한 그 원인은 사실은 부화업체부터 타격이 시작 되었고 또 부화업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의 초생추 판매량은 산란초생추 12,900,000수 육계초생추 29,500,000수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년에 없던 기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가금의 증식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산과잉에 따른 판매가의 하락으로 양계업계 전반적인 불경기의 시초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한국부화협회 통계에 따르면 1972년 2월 현재 전국의 부화장수는 무려 381개소에 달하며 전년도 보다 20%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있다. 이들이 보유한 부화기대수 수 1,410개, 입란능력은 18,600,000개이다.

그러나 이들 부화장의 안을 들여다 보면 종계장을 소유하지 않은 부화장이 절반인 191개소에 달한다. 종계가 아니라

또한 같은 종류의 종계라도 부화장에 따라 그 성능의 차이가 심하여 부화장의 신용이 큰 관건이 되어가는 지금에는 하물며 종계 없는 부화장의 도태는 시간문제이며 또 마땅히 도태되어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화장은 보다 알찬 경영으로 보다낳은 종계 육성과 우수한 초생추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 종계 등록사업이 추진됨은 다행한 일이며 그 기대가 크다.

위에서 부화장의 여러 가지 불합리점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종계자체를 정리함으로써 부화장의 경영상태 질병 영계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P.S의 도입규제 국내 G.P.S에서 생산되는 P.S 우수한 국산종계의 총괄적인 생산조절로서 초생추 출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면서 분양시의 초생추의 질병(추백리는 물론 마렉씨병, 백혈병, 만성호흡기병)의 철저한 예방조치로 육추율과 나아가서는 육성율을 높여주는 것이 부화장의 불합리한 경영상태를 벗어나는 길이며 앞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리라 생각된다.